FUN economy He 스토리

美유학시절 록밴드서 기타·보컬… 밴드서 리더십 길렀죠

CEO가 말하는 내 인생의 ○○○

맥쿼리코리아 워커 회장의 '음악'

돌아보면 내 인생에는 항상 음악이 있었다. 나는 호주 시골에서 네 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는데 가족 모두가 악기를 하나 이상씩 연주했다.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 같았다. 어머니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에 능하셨고, 아버지는 아코디언과 하모니카를, 남동생은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두 명의 여동생은 기타와 피아노를 다뤘다. 장남인 나는 이 모든 악기를 조금씩 배웠고, 특히 기타와 피아노를 즐겨 연주했다. 우리 가족은 틈만 나면 각자 악기 연습에 몰입했는데, 형제가 넷이나 되다 보니 서로 연습할 시간을 할당받느라 경쟁해야 했다. 경쟁 속에서도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방법을 이때 배운 것 같다.

어린 시절, 호주 음악학교에서 음악을 배울 때 시험 통과를 위해 지독하게 연습했고, 커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록밴드를 결성해서 기타리스트와 보컬을 하며 학비를 벌었다. 지금은 은행가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며 음악을 통해 나름대로 사회 공헌에 힘쓰고 있다. 인생 전반에 걸쳐 음악을 배우며, 음악과 함께 지금까지 왔고, 음악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와 깨닫지만 어린 시절 음악을 가르쳐주신 부모님은 내게 엄청난 보물을 주신 거나 다름없었다.

한번은 남동생과 함께 어려운 호주 작곡가의 작품을 듀엣으로 연주하기 위해 아버지가 엄청나게 연습을 시켰던 때가 있었다. 정말 빠른 손가락 기교가 필요해서 나는 동생이 무대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했다. 그러다 문득 이건 동생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걱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관객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동생보다 내 걱정이 앞섰던 것이 부끄러웠고, 듀엣곡의 완성을 위해서는 결국 내가 동생을 잘 리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생이 긴장을 풀고 자신을 믿으며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내 책임이고, 또한 우리가 성공적으로 듀엣 연주를 하는 것은 우리 둘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즐겁게 연주했고, 콘서트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음악과의 인연은 미국 유학 시절에도 이어졌다. 1970년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샐리스(Salis)'라는 록밴드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았다. 이 록밴드 활동으로 번 돈으로 나는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밴드에서 나는 작사·작곡도 맡았는데, 밴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밴드에 적합한 노래를 선택하고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팀에 맞는

밴드에 맞는 노래 고르고
다양한 연주자들과 소통…
직접 작사·작곡까지 도맡아

한국서도 직장인 밴드 결성
어르신 찾아 자선공연 해요

테마와 선곡이 아니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팀이라도 성공할 수 없다. 또 개별 연주자가 훌륭하더라도 다양한 연주자와 악기를 적합하게 배합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밴드는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회사 내에서의 팀 구성과 이를 리드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 그리고 리더십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맥쿼리가 인프라 투자 쪽에서 성공한 것처럼, 창의적이면서 틈새를 공략하는 제품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도 이때였다. 그 당시 샐리스는 우리와 비슷했던 수많은 다른 학생 밴드나 전문 밴드와 경쟁하기보다는 다른 밴드들이 하지 않는 음악을 지향했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만들어 관객들이 샐리스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성공했다. 이때 작곡했던 '내 마음 속의 고속도로(Highway of my Mind)'라는 곡은 최근 발매한 앨범에도 실렸다.

관객 앞에서 공연하는 것은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지만, 음악을 전문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 희생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밴드 하는 친구들과 같은 집에서 살다 작은 아파트로 독립하니, 작곡하고 공연에서 번 돈으로 집세를 내고 나면 먹고살기도 빠듯했다. 할 수 없이 빵집에서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주일에 몇 번은 공사장에서 지붕 타일과 벽돌을 날랐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정말 즐거웠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마음 한편에는 좀 더 진중한 일에 대한 열망도 있었다. 정치학을 전공한 나는 결국 공무원 채용 기회를 접하고 응시했다. 공무원 초년병 시절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 밴드를 하기도 했지만 승진하면서 결국 기타에 거미줄이 생겼다.

정부 관료에서 은행원으로 변신한 것은 1998년이었다. 다른 쪽 언덕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한국처럼 음악을 좋아하는 나라에 오니 다시 음악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한국에서 직장인 밴드를 시작했고, 이 활동은 회사일을 하는 데도 큰 활력이 되고 있다. 사업이 잘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음악을 통해 힘을 내고 버틸 수 있었다. 또 음악을 통해 많은 한국 사람과 친해진 덕분에 한국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우리 밴드는 틈틈이 어르신들을 위한 자선 공연을 하고 있다.

음악은 내게 인내하며 배우는 법, 남과 조화를 이루는 법, 경쟁하고 협상하는 법, 팀을 꾸리고 리드하는 법,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법, 그리고 나누며 사는 법을 가르쳐줬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왜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서 그렇게 중시하던 음악과 음악 교육이 나에게 무엇을 안겨주었는지 정말 명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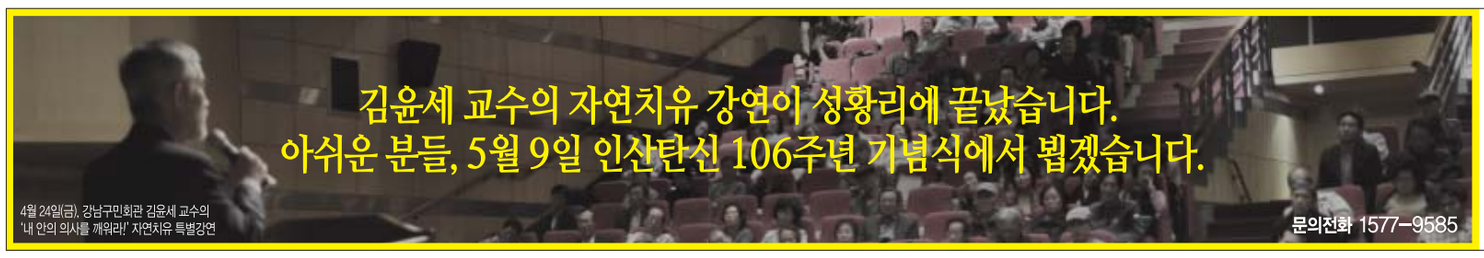
장련성 객원기자

27일 서울 중구 맥쿼리코리아 사무실에서 존 워커 회장이 기타 연주를 하고 있다. 직장인 밴드 활동을 하며 틈틈이 자선 공연을 펼치는 워커 회장은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음악을 통해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존 워커 회장은

존 워커(60) 맥쿼리코리아 회장은 지난 2000년 직원 3명과 함께 한국에 맥쿼리 지점을 열고 생소한 분야였던 대체투자를 한국에 소개한 인물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대형 민자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사세를 키웠다. 현재 직원 수는 240명, 자산은 200억 호주달러(약 17조원)에 이른다.

워커 회장은 외국 기업인 중 대표적인 친한파(親韓派)로 통한다. 호주·한국경제협력위원회 부회장과 호주태권도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2009년에는 한국의 반달곰을 소재로 한 영어 동화책 '우라의 모험'과 '우라의 꿈'을 출간해 수익금 전액을 환경단체에 기부했고, 2014년에는 자작곡 앨범 '12개의 다리'를 발표해 수익금을 한국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에 기부했다. 호주 뉴잉글랜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호주 연방정부 차관 등을 지내다 맥쿼리로 이직했다. 최규민 기자



죽염종가 - 인산家 건강 이야기 178
가장 건강했던 그 몸, 그 상태로
이제, 좋아질 것입니다
인산家 insanga
www.insanga.co.kr

오늘의 운세

4월 29일 수요일(음력 3월 11일 乙亥)

김재근 운관철학관장 (051)553-6958

子

36년생 부담스러운 부탁은 거절하도록. 48년생 통신 사기 당함을 조심. 60년생 직장 문제로 고심이 될 듯. 72년생 작은 지출은 생활의 활력소가 됨. 84년생 오늘은 빨간색 계통이 행운색이다. 96년생 미래 문제로 고민이 생기리라.

丑

25년생 무해무득하고 평화로운 하루. 37년생 어두운 곳에서 촛불 얻은 형국. 49년생 남쪽 문서는 성사가 쉬울 것. 61년생 요식업자는 장사 수입 더 오르리라. 73년생 남의 말을 함부로 믿지 말라. 85년생 직분에 충실하도록 함.

寅

26년생 운기 평탄하여 무난할 것. 38년생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풀림. 50년생 바라는 일 좋은 성과 생긴다. 62년생 하고 있는 일에 소득이 생기게 될 듯. 74년생 근심 걱정 없이 편한 하루. 86년생 생각지 않은 좋은 일 생긴다.

卯

27년생 심혈관 계통 질병을 조심할 것. 39년생 가족 화목과 평화에 신경 쓰도록. 51년생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 듣게 되리라. 63년생 가뭄에 단비 내리는 형국. 75년생 영업 실적 더 오르게 된다. 87년생 실망하지 말고 자신감 가짐.

辰

28년생 낙상이나 골절 조심한다. 40년생 바라는 문서 매매 성사가 비친다. 52년생 사업상 거래가 순조롭게 된다. 64년생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게 된다. 76년생 사고가 따르니 안전사고를 유의. 88년생 언행만 조심하면 무난하다.

巳

29년생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 것. 41년생 오늘은 숫자 7 사용하면 좋음. 53년생 막힌 일에 실마리가 보이게 되리라. 65년생 직업에 대한 보람 느끼게 된다. 77년생 영업 방향은 서남 간이 좋다. 89년생 노란색 계통이 길한 색이다.

午

30년생 반가운 사람 찾아올 듯. 42년생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54년생 원하는 일이 지연될 수 있음. 66년생 주고받는 것 확실히 한다. 78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조심. 90년생 통신 사기 당함을 주의.

未

31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43년생 생각하는 일 순조롭게 진행됨. 55년생 품위나 명예 유지에 신경 쓸 것. 67년생 생각은 깊이, 결정은 신중히. 79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91년생 순풍에 배를 띄운 형상.

申

申 32년생 자녀 문제로 생각 많을 것임. 44년생 원칙과 정도 벗어나지 말 것. 56년생 사소한 일에 집착하면 큰일 놓침. 68년생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노력하도록. 80년생 인정에 이끌리지 말라. 92년생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필요.

酉

酉 33년생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는 날임. 45년생 이해 관계가 서로 맞게 됨. 57년생 마음은 있으나 현실 상황이 부족. 69년생 금전 회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81년생 이상은 높으나 기대에 못 미침. 93년생 자신감을 잃지 말도록.

戌

戌 34년생 속마음 드러내면 오히려 구설. 46년생 매매 관계 좋은 소식 오게 됨. 58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70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면 편하다. 82년생 의욕과 희망으로 자신감 충만. 94년생 꿈과 희망 위해 노력함.

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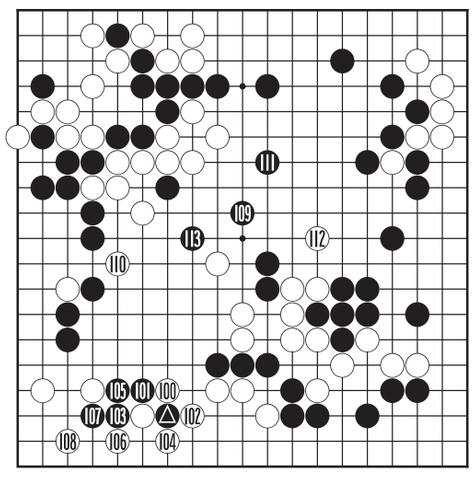
亥 35년생 과욕하면 오히려 손해. 47년생 실리도 중요하지만 명분도 소중함. 59년생 사소한 일로 마음 상처받지 말 것. 71년생 이성 문제로 시끄러움을 조심. 83년생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 되도록. 95년생 즐거운 하루가 되리라.

제19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 제3국 〈흑 6집반 공제·각 3시간〉

○ 김지석 九단 ● 박정환 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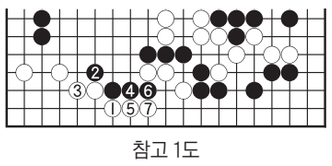
바겐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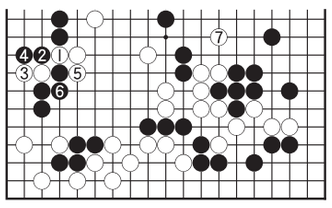
〈제8보〉(100~113)=결승 3번기 1국은 백을 쥔 박정환이 완승했고, 2국은 화려한 타개 능력을 마음껏 구사한 김지석이 백으로 승리했다. 3국도 백을 쥔 김지석이 판을 주도해가고 있다. 두터운 적세(敵勢) 속에서 '깨고 챙기는' 수법이 2국 때와 상당히 닮았다. "공격에 자신이 없다"는 박정환의 약점을 잘 추궁하는 흐름이다. 김지석이 이겨 '백번 필승' 공식을 완성하게 될까.

흑이 ▲로 붙여온 뒤 100 젖힘에 101로 맞끊은 것은 예정 코스. 김지석은 별 고민 없이 108로 도강(渡江)하는 데까지 싹싹하게 처리한다. 100으로 참고 1도 7까지의 수법도 있지만 중앙을 의식해 두텁게 처리한 것. 그러나 실전은 실리 손해가 너무 커 지나친 '바겐 세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직 백이 앞서가긴 해도 흑과의 간격이 조금씩 좁혀져 가고 있다.

109의 위협사격으로 110의 보강을 강요한 뒤 111로 뛰자 우중앙 흑진이 부풀어 간다. 112의 한 칸 뜀은 당연한 수. 그러나 선행(先行) 수순이 빠졌다. 참고 2도 6까지의 선수 권리를 행사한 뒤 7로 뛰었더라면 후환이 남지 않았을 것이다. 흑은 113으로 일(日)자 행마 시리즈 속에 또 한 번 백을 양단(兩斷)할 기세.



참고 1도



참고 2도

이홍렬 바둑전문기자 LG: baduk.lg.co.kr

톡톡톡 생활외국어

스피킹이 강해지는 영어 2173

That sounds good to me.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때 Yes나 Okay라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기 십상이다. 동의를 나타내는 말로 오늘의 표현 "That sounds good to me"도 기억해두자. 대체적으로 that을 생략하고 "Sounds good to me"라고 말하기도 하니 두 가지 다 기억하자. "That's nice"도 동일한 뜻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A I'm here to let you know I'm going to throw a party tomorrow night. Will you join us?
B Wow! **That sounds good to me.** You can count me in.
A Perfect! It will be fantastic. I will see you then.

A 나 내일 저녁에 파티 열건데, 네게 알려주려고 왔어. 참석할 거지?
B 와우! 그거 좋은 생각인데. 참석할게.
A 아주 좋아! 완전 멋질 거야. 그때 보자.

let ~ know ~에게 알려주다 /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 / count ~ in (어떤 활동에) ~을 포함시키다[끼워다]

YBM어학원 강사 Benjamin Brown YBM
문의 02) 2000-0553 / www.ybmbooks.com
취업과 승진 필수 어학자격 ETS TOEIC Speaking

스피킹이 강해지는 중국어 2164

别多心
괜한 걱정하지 말아요

'多心(duōxīn)'은 상대를 믿지 못해 공연한 의심을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다. 예를 들면 '你太多心了, 要相信朋友(nǐ tài duōxīn le, yào xiāngxìn péngyou 괜한 걱정이에요, 친구를 믿으세요)'처럼 쓴다.

A 刚才我跟他打招呼他没理我,
Gāngcái wǒ gēn tā dǎzhāohu tā méi lǐ wǒ,
是不是生我的气了?
shìbushì shēng wǒ de qì le?
B 别多心, 他可能没看见你。
Bié duōxīn, tā kěnéng méi kànjiàn nǐ.
A 방금 그한테 인사했는데 걸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제게 화난 게 아닐까요?
B 괜한 걱정하지 말아요, 아마 당신을 보지 못한 거겠죠.

打招呼 dǎzhāohu 인사하다 / 理 lǐ 거들떠보다, 아랑곳하다

YBM중국어전문학원 강사 왕완링 YBM
문의 02) 2279-0505(연결 2번) / www.ybmbooks.com
취업과 승진 필수 어학자격 TSC 중국어 말하기 시험

스피킹이 강해지는 일본어 2167

～がしける
～이 눅눅해지다

물기나 기름기가 있어 딱딱하지 않고 무를 때 「～がしける」(～이 눅눅해지다)를 쓴다. 이를테면 「のりがしける」(김이 눅눅해지다), 「お菓子がしける」(과자가 눅눅해지다)와 같이 쓴다.

A あら、お煎餅がしけてるわ。
아라 오 센베- 가 시케 떼 루 와
B 本当だ。ふにゃふにゃだね。
혼또- 다 후 냐 후 냐 다 네
A 缶のふたを閉めなかったからよ。
칸 노 후 따 오 시메 나 캇 따 까 라 요
A 어, 전병이 눅눅해졌어.
B 정말이네, 흐물흐물하네.
A 캔 뚜껑을 안 닫아서 그래.

ふにゃふにゃ 흐물흐물 •부드러워서 탄력이 없는 모양 / 閉める 닫다

전 YBM일어전문학원 강사 오유 유키오 YBM
문의 02) 2000-0532 / www.ybmbooks.com
취업과 승진 필수 어학자격 SJPT 일본어 말하기 시험

신문으로 배우는 實用漢字 1198

病暇 병가
몸이 아파서 얻는 휴가

"박경정 또 다시 病暇 내"

조선일보 2014.12.03 A4면

病: 병 병(疒, 10획, 초급) 暇: 겨를 가(日, 13획, 중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한 해 동안 疾病(질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액이 120조에 이른다고 한다.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도 愛國(애국)인 시대인 것이다. 病은 의미요소로 '침상'과 '중환자'를 뜻하는 疒(녁)과 발음요소인 丙(병)이 더해진 글자로 본뜻은 '중병'이며, 요즈음에는 일반적인 '병'의 뜻으로 쓰인다. 問病(문병)은 '병상에 있는 사람을 위문하다'의 뜻이다. 暇는 의미요소로 '해'의 뜻인 日(일)과 발음요소인 叚(가)가 더해진 글자로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겨를'의 뜻이다. 餘暇(여가)는 '틈'이나 '겨를'의 뜻이며 公暇(공가)는 '공식적인 휴가'의 뜻이다. 病暇는 '병으로 얻은 틈이나 겨를'로 몸이 아파 쉬는 休暇(휴가)를 의미한다.

원광대 교양교육대학 교수 최성업 YBM
문의 02) 2279-0505(연결 2번) / www.bizhanja.co.kr
국가공인 한자시험 YBM 商務漢檢

talk.chosun.com과 www.ybmbooks.com에서 영어·중국어·일본어 대화 내용을 원어민 발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